



◀ 광주국제협력단 같이-가치 나눔봉사단이 지난 2019년 동골에서 진행된 행사 모습. <광주국제협력단 제공>

# “해외 오지 아이들에 예술 나눔”

아이들과 벽화그리기, 미술대회, 나눔장터와 운동회.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 지역의 아이들에게 예술의 향기와 추억을 선사하는 의미있는 행보가 이어진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광주국제협력단(이사장 최동석)은 지난 2019년부터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같이 가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미술 작가들과 아마추어 작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같이,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해 기획한 프로젝트로 봉사활동과 함께 작가들을 지원하는 아트펀딩도 함께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2019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몽골, 미얀마 등에 다녀왔다.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을 나가지 못했고, 2022년에는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다.

광주국제협력단 제5기 같이-가치 나눔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봉사단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북부 사파 지역으로 떠난다.

이번에 파견되는 봉사단은 광주국제협력단 문화분과 이사를 맡고 있는 김해성 작가를 비롯해 박광구, 김영태, 문정호, 전현숙, 임근재, 정기주,

(사)광주국제협력단 ‘같이 가치’ 8~17일 베트남에 봉사단 파견 ‘아트펀딩’으로 지역작가들 지원 성과물·활동사진 등 4월 전시회

조광훈, 조현수, 문희진, 이승기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 등 모두 18명이다.

참가자들은 여행중 베트남 사파 마을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 및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나눔을 진행한다. 또 즐거운 운동회와 다양한 물품을 나누는 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봉사 활동과 함께 작가들은 ‘아트펀딩’을 기반으로 스케치 문화여행을 이어간다. 이번 여행은 베트남 북부 사파 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화려한 색상과 다채로운 문양의 의복과 주변 풍광 등은 작가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트펀딩’은 여행을 통해 지역 작가들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작가들이 스케치 여행에 나서 세

로운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20만원부터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고, 작가들이 여행지에서 그린 스케치나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선배 작가들이 지역 유망 젊은 작가들이 좀 더 다양한 작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나눔행사에도 뜻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

또 비용을 지원하는 일반인들과 예술가들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 경제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나누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 형성 없이 어렵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 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가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는 기회도 된다.

베트남 여행의 성과물과 활동사진 등은 4월 아크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김해성 작가는 “같이 가치 활동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의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나눔의 활동”이라며 “펀딩을 하는 후원자와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도자문화관’ 건립 성공적으로 추진 할 것”

국립광주박물관 이애령 신임 관장 취임

신임 국립광주박물관 관장에 이애령(55)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이 취임했다. 신임 이 관장은 도자사를 전공한 미술사학자로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근무를 시작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한글박물관 전시과장,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박물관 전문가다.



이애령 신임 관장

특히 이 관장은 ‘세기의 기증’이라 불리는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2만3000여 점 중 355점을 엄선해 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견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르네상스를 연 승려 장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소개한 ‘조

선의 승려 장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기증을 기념하는 특별전 ‘한겨울 지나봄 오듯-세한-평안’ 등 굵직한 전시를 기획·총괄했다.

이 관장은 “광주 박물관이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인 아시아 도자문화 거점이 될 ‘도자문화관’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아시아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내외적 위상을 갖추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회화’의 진화...새로운 가능성

청년작가 5인 ‘Prologue 23’ 전, 15일까지 무등갤러리

청년작가들의 패기를 만나. 개성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청년 작가 5인의 ‘Prologue 23’ 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곽예상, 서진우, 이소현, 최운정, 육사사. 곽예상 등 4명의 작가는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중곡 작가 육사사는 텐진미술대에서 판화를 전공한 후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대미술 중 회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는 작가들이다.

의식 속 추억과 사건을 ‘기억’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곽예상은 캔버스에 풀어놓은 흐릿한

풍경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진우는 모든 것이 직접, 간접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구조를 광학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이소현은 선을 이용한 드로잉과 디지털 매체 등을 이용한 독창적인 작품을 전시하며 최운정은 세상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는 성찰적 태도를 본인만의 이미지로 시각화해나간다.

또 전통적 수작업 판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표현



곽예상 작 ‘Faded-landscape’

방법을 보여주는 중국작가 육사사는 여성주의를 주요 관점으로 여성의 몸을 통한 감정을 작품에 녹여냈다.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 단체 28일까지 공모

아시아문화자원을 모티브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 무대에 올릴 단체를 공모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해외 예술단체와 함께 콘텐츠를 창·제작, 무대에 올릴 단체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작품 주제는 ‘도시문화’·동시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아시아 관련 소재를 다룬 작품도 가능하다. ACC는 공연을 진행할 2개 단체와 시범공연 부문 3개 단체 등 모두 5개 단체를

선정한다. 선발된 단체엔 연구, 교류, 창·제작, 공연 실현 등에 총 9억7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이들 단체는 ACC와의 협력제작 과정에 참여해 함께 작품을 개발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오는 28일까지(본공연 신청 단체는 17일까지) e-나라도움공모시스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서포터즈 13일까지 모집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함께 만들어갈 글로벌 서포터즈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글로벌 서포터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최대 10명이 전시가 폐막하는 올해 7월까지 5개월 여 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미지, 영상 두 분야를 선발하며 소정의 활동비, 전시 관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글로벌 서포터즈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해 매달 한 건씩의 다국어 콘텐츠를 개발 및 홍보하면서 재단의 국외 홍보 역량 강화에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매달 1회 이상 행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취재 및 제작해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영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도 게재된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중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는 대학생, 대학원생 15명으로 구성돼 매달 각 전문가 멘토와의 기획회의를 거쳐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대보름, 향관에 노세’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5일 대보름 맞이 프로그램 진행

대보름을 맞아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전통문화관이 ‘대보름, 향관에 노세’를 연다. 오는 5일 열리는 무등풍류 연은 대보름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먼저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대보름 놀이’ 전시에서는 송광무 명화장(광주시 무형문화재)의 계묘년 세화 작품을 만난다. 대보름 토끼, 쥐불놀이, 연날리기 등 대보름 관련 설치 작품은 숲속대문과 너털마당 일원에서 감상이 가능하다.

한복을 입고 보름달에서 방아 쪼는 모습을 담은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전시와 포토존 작품은 ‘자연만들기(대표 류종원)’가 준비했다.

이어 ‘매 마당’에서는 비사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난 마당’에서는 문무관들의 전통의상을 무료로 입어볼 수 있다. 세계의 전통 놀이를 즐기는 ‘국 마당’에서는 핀란드의 전통 놀이 ‘물기’를, 선비 놀이 공간인 ‘죽 마당’에서는 참고누와 여기저기를 체험할 수 있다.

너털마당에서는 황해도 배뱅이굿 보존회가 선보이는 대보름굿 공연이 펼쳐지며, 박일홍 황해도 배뱅이굿보존회 이사장을 비롯해 다수 회원들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회원들이 극중 역할을 맡아 무대에 서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무등풍류 연 2월 공연은 유튜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감상이 가능하며 댓글을 남기면 20명을 추첨해 세화를 준다. 행사는



무료,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와 SNS 통해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모집...13~23일 접수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임방울국악교실’은 민요와 판소리, 장고, 고법, 가야금병창, 무용으로 구성됐다.

민요(월·요일 10시~오후 12시)에는 정상희 제26회 임방울국악제 대령상 수상자가, 판소리(월·요일 1시 30분~오후 3시 30분)에는 마미숙 제23회 임방울 국악제 대령상 수상자가 강사로 나서며 장고(화·오 2시~오후 4시)에는 김민영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가 함께한다.

수요일(오후 1시 30분~오후 3시 30분)에는 고법 강의가 열린다. 강의는 임영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가 진행하며 목요일(오후 2시~4시)에는 제17회 임방울국악제 가야금병

창 장관상을 수상한 김연우가 가야금 병창을 가르친다.

무용 오전반(오전 10시~오후 12시)에는 박선옥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오후반(오후 2시~오후 4시)에는 최미애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가 함께한다.

무용을 제외한 수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무용은 13일부터 23일까지 접수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수강은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 판소리시민체험장에서 진행되며 3월 6일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10개월 간 진행된다. 수강료 월 1만 원. 문의 062-521-0731.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